

세계적 작가 작품·AI 서비스 ‘눈길’… 하이엔드 가치 극대화

부동산 현장 르포

현대건설 ‘디에이치 방배’

큐브 아틀리에에 들어서면 밖으로는 박선기 작가의 큐브 타워가 보이고, 안에서는 천장을 올려다보면 반짝이는 아르킬 비즈가 공중에 떠있는 듯 보인다. 신라호텔 로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상들리에와 같은 시리즈다. 33층 스카이 라운지인 클라우드33에도 세계적인 작가 알렉산드르 벤자맹 나베가 현장에서 직접 그린 벽화가 펼쳐지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가구는 5성급 호텔에서 드물게 보이는 이탈리아 초고가 브랜드인 비엔비(B&B)와 미노티가 전면에 배치됐다.

지난 10일 찾은 ‘디에이치 방배(THH H 방배)’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앞두고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사전점검 역시 단순히 시설 하자 체크를 넘어 앞으로 누리게 될 공간과 서비스,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해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의미의 쇼케이스(SHOWCASE)로 진행했다.

디에이치 방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 방배5구역에 재건축에 들어섰다. 지상 33층, 29개 동, 총 3064세대 규모의 대



디에이치 방배 아트밸리.

주거플랫폼 ‘H 컬처클럽’ 첫 적용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제공 “반포·한남 등 디에이치 문화 확산”

단지다. 방배동 정비 사업지 가운데 가장 고층이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로는 7번째 단지지만 대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개포주공1단지를 준공한 이후 두번째다.

디에이치 방배는 현대건설의 주거 서비스 플랫폼인 ‘H 컬처클럽’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주거 공간을 넘어 입주민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

이다. 현대건설은 직접 제공하는 세대관리 서비스와 전문 운영사와 협업해 단순한 커뮤니티 시설 제공을 넘어 문화·예술·교육·건강·취미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전점검을 하면서도 앱을 통해 20개가 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사전 예약 후 H 컬처클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아파트 커뮤니티로는 최대 규모인 H시네마와 북카페에서는 최신 영화 상영과 프라이빗 북콘서트가 열리며, 서울옥션블루의 프라이빗 도슨트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조경은 아티스트를 연상



/현대건설



디에이치 방배 단지 내 수영장. /안상미 기자

토록 조성됐다. 현대미술관의 왕실의 정원 같은 ‘로얄 보타닉’ 콘셉트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이 곳곳에 배치됐다. 계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H아트밸리는 클럽하우스에서 워터게이트까지 이어지며, H네이처밸리는 협곡의 풍경을 담아 국내 최장 규모인 340m 석가산으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단지 상징목으로는 함양에서 옮겨온 살구나무와 산청 메타세쿼이아, 강릉 소나무, 경주 팽나무 등이 자리했다.

세대 내부에서는 AI 기반 주거 서비스가 적용됐다. 특히 빌트인 음성인식 시스템인 ‘보이스홈’으로 조명과 난방 등을 제어할 수 있다.

김기만 디에이치 방배 현장소장은 “디에이치 방배는 조경과 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특화 단지”라며 “방배에 이어 향후 반포와 한남, 압구정에서 디에이치 문화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4년 8월 분양 당시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와 전용 59㎡가 각각 22억4450만원, 17억2580만원이었다. 올해 4월 전용 84㎡가 36억9295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디에이치 방배의 준공은 다음달 말, 입주는 9월 초로 예정돼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양종희 “AI 기반 일하는 방식·금융상품 재설계” 금융당국,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찾는다

〈KB금융그룹 회장〉

KB금융그룹 경영진 워크숍

270명 참석… 중장기 경영전략 논의
WM 재설계·AI 전환 가속화 등 어젠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시스템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보고, AI를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경남 사천 KB인재니움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머니무브는 위기가 아니라 WM(자산관리)과 자산운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생산적 금융은 KB의 CIB(기업·투자금융)와 중소기업 비즈니스 역할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및 경쟁 환경 속에서 그룹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룹 경영진 약 270명이 참



지난 10일 경남 사천 KB인재니움연수원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석했다.

양 회장은 “금융그룹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경쟁력은 고객에게 종합적인 금융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AI 대전환 그리고 머니무브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열사가 고객을 중심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통상의 관성을 넘어선 가장 다른 생각으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다음 3년(2027~2029년)을 목표로 현재 수립 중인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경영진들은 자본시장 성장과 머니무브, 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 변화, 생산적 금융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고, KB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함께 점검했다.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의 5대 핵심 어젠다는 ▲WM(자산관리) 및 연금사업 모델의 재설계 ▲차별적인 중소법인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그룹 CIB 및 자본시장 협업 체계 강화 ▲보험 비즈니스 및 투자운용 역량 선진화 ▲그룹 AI 전환 가속화로 드맵 수립 등이다. 다양한 개별 토론 세션을 통해 계열사별 실행과제를 구체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문가 특강에는 “AI, 모든 산업을 재설계하다”를 주제로 KB증권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이 ‘AI를 통한 향후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변화’를 예상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안상미 기자

전월세 금융지원 등 검토

금융당국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주택매매 지원보다 전월세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향이다. 다만 전월세 지원이 전셋값을 자극하고, 나이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생애최초 관련 규제완화나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상품의 대상 주택 기준 현실화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현재로서는 금융위가 주담대 대출한도 완화로 매매를 지원하기보다는 전월세 지원부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집값 안정을 목표로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집값이 오른 것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완화해주는 것은 정책 근본이 흔들리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전월세 부담은 최근 더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이어진 데다 지난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임대 매물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전월세 지원 방안으로는 저리 대출을 확대하거나 보증 한도를 늘려 실질적인 대출 여력을 높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지원책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전월세 대출이 확대될 경우 전세 수요를 자극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점을 가장 큰 부담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세 제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매 지원을 확대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면 전셋값을 밀어올릴 수 있는 만큼 당국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부담이 적지 않다”며 “과거와 같은 대출 확대 방식보다는 새로운 지원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국 3개 단지 753가구 분양… 모델하우스 11곳 오픈 예정

분양 캘린더

7월 셋째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75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46가구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 울산 울주군 온양읍 ‘센트럴캐사’ 등 3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동문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8층~지상 최고 29층, 3개동, 전용면적 46~62㎡, 총 301가구 중 7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 단지로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편리하다.

모델하우스는 강원 춘천시 장학리 ‘춘천리버뷰아파트’, 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 경남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

빌아스테리움거제’ 등 11곳이 오픈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장학리 일원에 ‘춘천리버뷰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62가구 규모다. 단지는 장학초를 비롯해 후평중, 강원중·고, 춘천여고 등을 도보통학할 수 있고 후평동 학원가도 가깝다.

/안상미 기자

캠코, 8116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15일까지 온비드 통해 참여 가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811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775건을 공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1693건, 동산 82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87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29건을 포함해 총 457건이 공매된다. 특히 감정이 70% 이하인 물건도 1243건 포함한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